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과 조선후기 석조불상

이 회 정*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성발원문과 중수기
- III. 삼세불상과 조각승 鹿元
- IV. 조선후기 석조불상의 분포와 諸樣相
- V. 맺음말

국문요약

부산 지역에서 조선후기의 불교조각이 있는 주요 사찰은 東萊 梵魚寺, 仙巖寺, 機張 長安寺 정도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기장지역은 크고 작은 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해동지도에 남아 있다. 기록에 의하면 船艫寺, 鷲井寺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현재도 남아 있는 安寂寺와 長安寺가 기재되어 있다.

현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에 소재하는 장안사는 오랫동안 원래의 자리에서 사찰의 명맥을 유지해온 때문인지 조선후기의 대웅전건물, 1657년 대웅전 석조삼세불상, 1684년에 조성된 응진전과 나한전 불상, 1856년에 조성된 명부전 불화 등 조선후기의 불교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대웅전 석조삼존불상인데 1657년 녹원이 조성한 것으로, 얼굴에서 느껴지는 강한 인상, 옷의 형식 등에서 그의 개성이 드러나며, 무엇보다 사찰측에서 요구하는 도상을 다루기 어려운 석재로써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장 장안사 대웅전 불상의 조성에서 보듯이 녹원의 이미 수화승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웅천 성흥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현재 해인사 명부전에 이전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봉안)조성에 지수의 차화승으로 함께 활동하였음도 알게 되었다. 지수와 녹원은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양식적인 특징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어 선후배의 관계, 혹은 동료의 관계로 같은 유파 속에 있는 회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안사 불상조성에 참여한 명준, 학륜 등은 양식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사찰 측의 요구에 의해 필요시 도와주는 형태의 차원에서 회원 집단이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안사는 대웅전, 명부전, 응진전 모두 석조불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모두 불석으로 조성된 것이며, 이것은 구룡포를 포함한 감포나 동해 등 불석의 수급이 용이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겨난 지역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조선후기 불상의 조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장 장안사 대웅전 불상을 통해 조선후기 석조불상에 대한 양상들을 살펴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좀더 많은 자료의 분석과 함께 연구를 개진하고자 하며, 부산지역은 물론 경상도 지역의 불교 조각 특징을 찾기 위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장안사, 조각승, 녹원, 경상도, 불석

I. 머리말

조선후기의 불교조각이 있는 부산지역의 주요 사찰은 東萊 梵魚寺, 仙巖寺, 機張 長安寺 정도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가장지역은 크고 작은 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해동지도》에 남아 있다. 기록에 의하면 船餘寺, 鷺井寺, 安寂寺, 長安寺 등의 사찰 명칭이 있으며 현재도 안적사와 장안사는 남아 있다.¹⁾

《해동지도》에는 장안사에 대해 “불광산에 있는데 남쪽에는 삼각산이 있으며, 현에서 북쪽으로 40리에 위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²⁾ 이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에 위치한 현재의 장안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에서 사찰의 명맥이 그대로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장안사는 조선후기 건물인 대웅전이 1995년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7호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면 불교유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1659년 대웅전 석조불상은 물론 1684년에 조성된 응진전과 명부전 불상, 1856년의 명부전 불화 등 17세기 중·후반경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불상과 불화들이 조성되고 봉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특히 대웅전 불상은 그 시점이 기록에 언급된 장안사의 중건 시기와의 일치하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최근에 발간된 『機張郡誌』에는 장안사의 개창은 문무왕16년(673) 원효가 초창하여 ‘雙溪寺’라 불리우다 신라 애장왕이 다녀간 뒤 ‘長安寺’라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에 전소된 것을 인조8년(1630) 의월대사가 중창하고 인조16년(1638) 泰義가 중건하였으며, 1654년 元正·學稜·冲墨이 중수하였다고 전한다.³⁾

위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현재 장안사 대웅전 불상은 양란이후 진행된 중창 불사 당시 제작된 작품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장안사 대웅전 불상의 특징과 조성기에 기록된 화승들의 활동 그리고 계보문제 등을 파악함으로써 부

1) 『海東地圖』機張縣에는 각 사찰의 위치에 대해 鷺井寺 縣距 十五里, 船餘寺는 縣距 三十里, 安寂寺 縣距十五里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산시·부산대학교, 『釜山の 古地圖』, 63쪽.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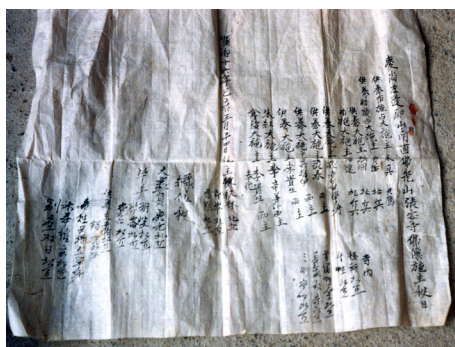
2)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東國大學校刊, 976쪽.

3) 『機張郡誌』에는 장안사의 개창과 중건, 중수에 관한 글을 적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 機張郡誌編纂委員會, 2001, 『機張郡誌』上, 461~4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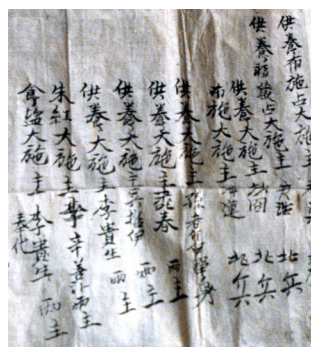
산 지역의 조선후기 불교 조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장안사의 1657년 대웅전 불상, 1684년 명부전이나 응진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이 석조라는 재료적 특징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1661년 범어사 대웅전, 미륵전의 전각에 모셔진 목조불상과는 다른 재료적 특징으로 장안사 불상은 물론 조선후기 석조불상의 전반적인 양상을 통해 이 불상만의 중요성을 부각해 보고자 한다.

II. 造成發願文과 重修記

대웅전 불상의 조성발원문과 중수기는 현재 불상에 재복장한 상태로, 이전 조사에서 확인된 사진으로 발원문과 중수기의 내용(그림1)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4) 기타의 복장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나머지도 모두 재복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복장 발원문과 중수기의 전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장안사 대웅전불상 조성발원문



<그림 2> 불상조성기 세부

『慶尙左道蔚山南面佛光山張安寺佛像施主史目

供養施主 占大施主 永眞 靈駕

供養腹藏 占大施主 良浩 比丘

供養大施主 妙問比丘

4) 장안사 대웅전 불상과 복장발원문에 대한 자료는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 이용현 선생님이 알려 주셨는데, 사찰측에서는 2년전 개금불사때에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었고, 1부 발원문의 복사본은 남겨두고 원본은 재복장되었다고 한다. 지면을 빌어 이용현 선생님께 자료제공과 불상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布施大施主冲蓮 比丘
 供養大施主孫者●(●)單身⁵⁾
 供養大施主恚春 兩主
 供養大施主吳荅伊 兩主
 供養大施主李貴生 兩主
 朱紅大施主幸善●兩主
 食鹽大施主 李貴生兩主
 奉化兩主
 順治十六年己亥五月二十四日化主 釋林比丘
 令峇比丘
 雷默比丘
 緣化秩
 大畫員 鹿元比丘
 片手 明峻比丘
 學崙比丘
 覺仁比丘
 供養主 ●●比丘
 ●悅比丘
 來往(?) 尹得立單身
 木手(?) 哲玄比丘
 別座 双日比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작연대와 시주자, 회원들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比丘’라는 글자 밑에 ‘八’자를 써 ‘兵’자 처럼 보이며 매우 서툰 서체를 보인다.(그림2) 제작연대는 順治十六年(1659) 己亥年으로 승려와 일반 백성들을 포함해 10여명의 시주자에 의해 대웅전 불상이 조성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앞의 문헌에서 인조8년(1630년) 의월에 의해 재건되었던 상황을 참고해 보면 29년 후인 1659년 불상이 완성되어 봉안된 시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적 격차를 보인다. 이는 두 가지로 분석되는데 원래 불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장안사의 경제적인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근 범어사의 경우를 보면 1658년에 대웅전 전각을 조성하고 1661년에 불상을 제작하여 봉안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창령 관룡사의 경우는 불전은 1617년에 재건되었으나 1629년에 불상이 조성 봉안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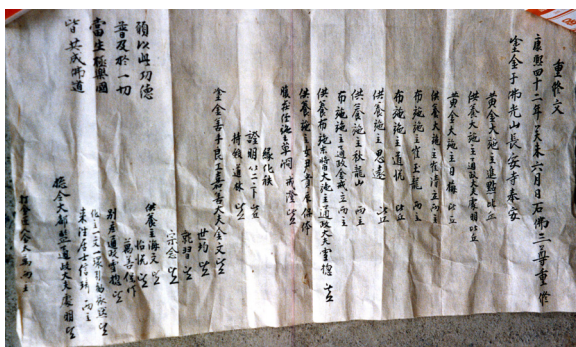
⁵⁾“●”는 사진상태가 좋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한 것임.

까지는 12년이 걸려 완성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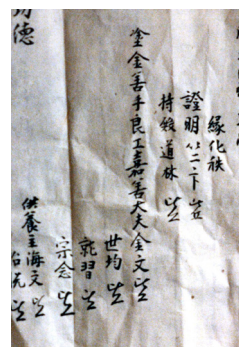
대웅전 불상에 시주한 사람들은 恔春, 吳蒼伊, 李貴生, 奉化 등인데 이들의 이름으로 보아 신분이 그리 높지 않은 인물들로, 장안사 근방 혹은 기장 지역내 사람들이 동참한 불사로 추정되며 이는 조선후기 사찰 불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불상제작에 참여한 화원은 鹿元, 明峻, 學崙, 覺仁이다. 수화원으로 참여한 鹿元은 1673년 조성된 합천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 조성에 참여한 인물로 밝혀져 있으며⁶⁾, 明峻은 1666년 전남 장흥 보림사 천왕상과 천왕문 중수⁷⁾, 1674년 장흥 보림사 시왕상을 제작⁸⁾과 1676년 전북 고창 선운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그리고 학륜은 17세기 후반 경북 예천 용문사 목각탱¹⁰⁾과 강원도 영월 보덕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상 제작에 참여한 인물이다.

대웅전 불상에 대한 조성기록 이외 또 다른 기록인 중수문도 발견되었다(그림3).



<그림 3> 佛像重修文



<그림 4> 重修文 細部緣化秩

6) “時維康熙貳年歲次昭陽赤(癸)舊若(丑)夾種(二月)…良工秩 證明持殿兼首頭 自修比丘 鹿苑比丘 宗印比丘 雪坦比丘 印守比丘 道雲比丘 覺仁比丘 雙玄比丘 敬性比丘 佛呂比丘 法閑比丘 性謙比丘 性眼比丘 玄祐比丘…” : 金智冠編著, 『伽倻山 海印寺誌』, 136~141쪽.
 7) “康熙二年契印明月寮重創 … 五年丙午年因爲丹青焉…同年天王及門重修 木手處尙 化主德彥 畫手 明峻 別座 處空 …” : 『譯註 寶林寺重創記』, 2001, 장흥문화원.
 8) “康熙二年契印明月寮重創 … 十三年甲寅十王新造 畫員 明俊 化主 玉淳 別座 雪英 …” : 『譯註 寶林寺重創記』, 2001, 장흥문화원.
 9) “… 康熙十五年丙辰 五月日 造成 十王也 … 畫員 明峻 敬益 處能 瓊湖 尙玄 宗善 清惠 明教 …” : 禪雲寺 冥府殿 道明尊者 腹藏原文, 『兜率山 禪雲寺誌』, 禪雲寺, 198,199쪽.
 10) … (전략) 畫員秩 瑞應比丘 卓密比丘, 學倫比丘, 法清比丘, 坦性比丘, 義禪比丘, 體元比丘, 學坦比丘, 太敏比丘(후략)…; 沈柱完, 2007, 『龍門寺 木佛像의 작품과 그 영향』, 『강좌 미술사』26호, 141쪽 참조.

「重修文

康熙四十二年癸未六月日石佛三尊重修

塗金于佛光山長安寺奉安 黃金大施主進點比丘

施主通政大夫處明比丘

黃金大施主日梅 比丘

供養大施主崔清立兩主

布施施主崔玉龍 兩主

布施施主道悅 比丘

供養施主 思遠比丘

供養施主秋龍山兩主

布施施主通政金成立兩主

供養布施末●大施主通政大夫雪摠比丘

供養施主女尹貴●保體

腹藏經施主 草澗 戒澄比丘

緣化秩

證明 竺卞比丘

持殿 道林比丘

塗金善手良工嘉善大夫金文比丘

世均比丘

就習比丘

宗念比丘

願以與功德 供養主 海文 比丘

普及於一切 怡悅 比丘

堂生極樂國 別座通政雪摠比丘

皆共成佛道 化主一文一環引●依默比丘

來往居士信●兩主

摠令大都監通政大夫處明比丘

打金●入金大萬兩主」

중수문에는 강희40년(1701) 계미년에 장안사 대웅전 불상의 중수가 있었는데 승려들을 주축으로 2명의 일반 백성이 시주에 동참하였으며, 대웅전 불상이 조성되고 43년 후 도금·중수가 이루어 졌다. 중수에는 塗金善手良工嘉善大夫 金文, 世均, 就習, 宗念가 활약하였는데(그림4). 이중 수회승 金文은 惠熙와 함께 1650년 전북 김제 금산사 대장전 불상을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¹¹⁾, 1655년 충남 보은 범주사 목조관음 보살 제작할 때에는 산중노덕으로

언급되어 있고¹²⁾ 1668년 김천 직지사 비로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보살상¹³⁾에도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世均은 1723년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불상의 개금과 1723년 영주 부석사 安養門重修記중 佛像緣化¹⁴⁾에도 수화승으로 활약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화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삼세불상과 조각승 鹿元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안사 대웅전의 불상은 수화승 녹원의 주도하에 제작되었다. 이 장에서는 대웅전 삼존상을 통해 녹원 작품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삼세불상의 특징과 조각승 鹿元

대웅전 가운데 높은 불단 위 연화좌에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아미타상과 왼쪽에 약사상이 봉안되어 있다.(그림5)

불단의 중앙은 석가모니상으로(그림6), 3구의 불상중 가장 규모가 크며 양측의 협시상은 크기는 작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에서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으로 조선후기 불상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랐으며, 허리를 세운 채 어깨를 앞으로 숙여 아래 예배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자세이다. 어깨가 좁은 반면 양무릎이 넓어 안정감 있다. 오른손은 내리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왼손은 무릎 위에 올린 항마촉지인의 수인이며, 목조로 손을 따로 만들어 끼웠다.

11) “大雄殿奉安 佛像造成年代及七星閣”

康熙十五年丙辰五月 大藏殿佛像(順治七年造成) 高山地大菴山安心寺所藏華藏庵證明大德冲順 畫員通政大夫 惠熙 金文 性悅 寶出, (懷)日. # — 정은우, 2006, 『17세기 조각가 혜희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2권, 159쪽.

12) 정은우, 같은 글, 155~156쪽.

13) …(前略) 佛像畫員 勝一比丘 三應比丘, 寶悅比丘, 金文比丘, 文彥比丘 (後略)…: 『한국의 사찰 문화재』경상북도II 자료집, 124쪽.

14) …(前略) 畫員 世均, 仁奎 信機 處習, 自治, 性崙, 先式, 道謙, 清稔, 應□, 德森 …: 『無量壽殿 佛像改金記』, 『佛教美術』3, pp. 61~62/ …(前略) 佛像緣化 世均, 仁奎 信機, 處習, 自治, 性崙, 先式, 道謙, 清稔, 應輝, 德森…: 『安養文重修記』, 『佛教美術』3, 54~55쪽.



<그림 5> 기장 장안사대웅전불상 전경



<그림 6> 석조석가여래좌상(본존상)

육계의 구분이 없는 머리는 높지 않고 둥글며, 넓은 이마에 비해 턱이 유난히 좁고, 턱을 수평으로 깎아 얼굴이 각져 있다. 강조된 안와선, 그로 인해 돌출된 듯한 큰 눈은 강한 인상을 준다.



① 장안사 대웅전 석조여래좌상, 1659년, 녹원작



②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祖能作



③ 부산 운수사 석조삼존불좌상, 17세기 후반작

<그림 7> 조각승에 따른 얼굴의 세부표현

장안사 대웅전 불상의 얼굴에 있어 안와선이 강조되면서 돌출된 듯한 눈은 특징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靈圭, 祖能에 의해 제작된 1657년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불좌상(그림7-②)은¹⁵⁾ 이마와 구분이 없는 듯한 안와선이 맛있게 윗 눈꺼풀까지 이어져 강한 인상의 장안사 불상과 달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있으며, 1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부산 운수사 석조불상(그림7-③)의 경우 석

¹⁵⁾ 2005년 11월5일 경남유형문화재 지정·조사하였음.

조이지만 안와선이 강하지 않고 눈꺼풀까지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석조라는 재료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각기 조각승마다의 양식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① 기장 장안사 대웅전불상(1659), 1659년, 녹원작



②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보살좌상, 1661년 희장작



① 기장 장안사 대웅전불상 1659년, 녹원작



②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657년, 조능작

<그림 9> 법의 세부표현

<그림 8> 군의 세부표현

법의는 오른쪽 어깨를 둥글게 감싼 변형식 편단우견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감아 왼쪽 겨드랑이로 빼내어 팔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조선후기 석가모니불상의 일반적인 착의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반신에 표현된 군의의 경우 발목에서 내려오는 옷주름이라든지 군의의 끝단이 도드라져 두꺼워 보이며(그림8-①), 특히 왼쪽 무릎의 넓적하고 두꺼운 소매자락은 1661년 범어사 대웅전 불상(그림8-②)이나 17세기 중엽경에 제작된 창령 청련사 불상의 소매자락이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세장하고 끝이 뾰족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석가모니상 좌측의 약사상, 우측의 아미타상은 다소 규모가 작아졌으나 얼굴 표정, 신체 구도 등의 특징이 대동소이하다. 법의는 본존상과 달리 오른쪽 어깨에 편삼이라는 옷을 입어 마치 2개의 옷을 겹쳐 입은 듯한 변형통견식의 착의 법인데 가슴 앞의 법의형태는 직각에 가깝게 꺾여 올라가는 U자형으로 형식화되었고(그림9-①), 복부와 직각으로 흘러내린 편삼자락은 조능에 의해 조성된 1657년 함양 법인사상(그림9-②)과 비교하면 조각승마다의 양식적 차이가 분명하다.



<그림 10> 장안사 대웅전
석조아미타불좌상
(우협시)



<그림 11> 장안사 대웅전
석조약사여래좌상
(좌협시)

양측 협시상은 본존상과 마찬가지로 양손을 목조로 별조하여 끼운 것이다. 양측 협시상들은 모두 아미타의 수인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의 아미타상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오른손은 가슴 위로 들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무릎 위에서 살짝 들고 있다(그림10). 이에 반해 약사상은 양손을 모두 무릎 위에서 살짝 들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양측상이 서로 다른 수인을 결하고 있어 주목된다(그림11). 조선후기의 삼존불상은 삼신불의 경우를 제외하면¹⁶⁾ 본존상을 중심으로 수인이 좌우대칭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삼세불의 아미타상에 경우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오른손은 가슴 위로 들고, 왼손은 무릎 위에 살짝 든 형식과 양손을 무릎 위에 살짝 들어 엄지와 중지를 구부린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되는데, 우측의 아미타상의 형식에 따라 약사상의 수인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안사 대웅전 불상은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특징을 따르지 않고 아미타상과 약사상이 서로 다른 수인을 결하고 있어 다른 조각승과는 차이가 있는 창의적 면모가 엿보인다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녹원이 조성한 장안사 대웅전의 석조삼존불좌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 불상 모두 넓은 이마가 비해 유난히 턱이 좁고, 턱을 수평으로 깎아 방향의 얼굴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선명한 안와선 등 윤곽이 뚜렷한 얼굴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릎 밑으로 흘러내린

¹⁶⁾ 구례 화엄사 대적광전에 봉안된 1636년 목조삼신불좌상이 대표적인데, 가운데 두 손을 모아 권 비로자나불좌상, 우측에 향마촉지인을 한 석가모니상과 좌측에 팔을 들어 양측으로 올린 노사나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법의 자락이나 소매자락이 두꺼우며 강하게 도드라져 있다. 아미타상과 약사상의 경우 머리와 얼굴 등은 본존상과 대동소이하나 직각으로 꺾여 올라가는 U자형의 법의 형태, 무엇보다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경향을 따르지 않고 각기 다른 수인 형식을 취한 것은 녹원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2. 녹원과 관련 조각승

이상 삼세불상을 통해 녹원 조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장안사 대웅전불상을 조성한 녹원은 합천 해인사 명부전 지장시왕상조성에도 참여하였다. 해인사 명부전 불상은 自修라는 수화승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 이 때에는 녹원이 차화승으로 활약하여 이 두 화승의 양식적인 관련성과 이들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복장발원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장안사 삼세불상 제작에 함께 참여한 明峻, 學崙, 覺仁 등 녹원과 작업한 조각승들의 작품과도 비교하여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녹원과 관련한 조각승의 활동과 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록을 통해본 조각승의 활동과 계보

時期	奉安處	作品名	彫刻僧	비고
1659	부산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鹿元, 明峻, 學崙, 覺仁	發願文
1666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중수	明峻	寶林寺重創記
1673	경남 합천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自修, 鹿苑, 宗印, 雪坦, 印守, 道雲, 覺仁, 雙玄, 敬性, 佛侶, 法閑, 性謹, 性眼, 玄祐	發願文 原熊川 聖興寺
1674	장흥 보림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明峻	『寶林寺重創記』
1676	고창 선운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明峻, 敬益, 處能, 瓊湖, 尙玄, 宗善, 淸惠, 明敎	『兜率山禪雲寺誌』
1684	경북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불좌상 및 목각탱	瑞應, 卓密, 學倫, 法淸,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木刻幀畫記, 木刻幀原文
1687	강원 영월 보덕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 좌상	卓密, 學崙, 坦性, 楚豈, 世雄, 處應, 裕特	



<그림 12> 합천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73년, 自修作



<그림 13>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본존상)

녹원은 기장 장안사 대웅전 불상조성 외에 1673년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조성에 參與하였다.(그림12) 『海印寺誌』에는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상과 목조시왕상은 원래 雄川 佛母山 聖興寺(경남 창원군 웅동면)에 있던 것을 1867년에 海印寺로 옮겨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¹⁷⁾ 1988년 이 불상에서 冥府殿樑間錄과 동시동처에서 示跡文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중 시적문에는 康熙拾貳年(1673) 敬請良工 造成地藏大聖 左右補處 道明尊者 無毒鬼王 及十王判官 鬼王 童子等尊像이라 하여 조각승을 청해 지장상과 보처로 도명과 무독귀왕 및 시왕과 판관을 조성하고 이에는 證明持殿兼首頭 自修 그리고 鹿苑, 宗印, 雪坦, 印守, 道雲, 覺印, 雙玄, 敬性, 佛侶 法閑, 性謙, 性眼, 玄祐가 있었음을 기록하였다.¹⁸⁾

장안사 불상과 같이 1657년 이미 수회승으로 활약하고 있던 녹원이 어떠한 관계에서 자수와 함께 해인사 명부전 불상조성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해인사 명부전 불상과 장안사 대웅전 불상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자수가 조성한 해인사 명부전의 지장시왕상의 특징을 보면(그림13), 하반신에 비해 상반신이 길며, 하반신은 높고 다리폭도 좁다. 이마가 넓으면서 턱이 좁은 얼굴은 턱을 수평으로 깎아 방형을 이루며, 안와선이 깊어 선명하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코는 오뎅하며 목과 가슴의 경계에 조밀한 삼도선이 표현되어 있다.

법 의는 오른쪽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입어 오른쪽 어깨를 살짝 걸쳐 내리는 변형통견식으로 입었으며, 거의 직각으로 꺾여 올라가는 U자형 법의형태,

17) 『가야산 海印寺誌』, 136~141쪽 참고.

18) 주17)과 동일.

수평의 승각기가 드러난다. 승각기는 길게 빼 올려 가운데를 사선으로 접어 모양을 내었으며, 군의는 가운데의 주름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비슷한 크기의 주름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왼쪽 무릎위로 흘러내린 소매주름은 앞사귀 모양으로 군의와는 별개처럼 도드라져 있으며, 가슴 위로 올린 오른쪽 손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소매주름의 표현은 다른 17세기 후반의 조각에서는 드문 특징으로 주목된다.

이를 녹원이 조성한 장안사 불상과 비교해 보면, 장안사 불상이 어깨가 좁고 다리 폭이 넓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해인사 명부전 지장상에 비해 좀 더 안정감이 있다.



<그림 14>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1673년, 自修作



<그림 15> 장안사 대웅전 석조아미타불좌상 1659년, 鹿元作

그러나 자수의 특징에서 보듯이 이마가 넓고 턱이 좁은 형태나 턱을 수평으로 깎아 방형으로 보이는 각진 형태의 얼굴은 장안사 대웅전 불상과 매우 닮아 있다.(그림14,그림15)



① 기장 장안사 대웅전불상 (1657), 녹원작



② 합천 해인사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1673), 자수작

<그림 16> 범의 세부표현



① 기장 장안사 대웅전불상 1657년, 녹원작



② 합천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1673년, 자수작

<그림 17> 군의 세부표현

또한 거의 직각으로 꺾여 올라가는 U자형의 법의 형태(그림16), 무릎 쪽으로 넓적하면서 강하에 도드라져 있는 소매자락(그림17) 이라든지 발목 아래로 몇 개의 굵은 주름으로 정리한 군의 자락 등은 유사함을 보여 같은 초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정도이다. 이상과 같은 자수의 조각적 특징은 녹원이 제작한 기장 장안사 대웅전 불상과 10년 이상의 시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유사성은 같은 계보에서 이어져 오는 조각승 이면서, 해인사 명부전의 복장 발원문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녹원보다 앞에 있는 자수는 녹원 선배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장안사 대웅전불상과 해인사 명부전 불상의 서로 다른 세부적 차이는 10여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곧 양식적인 차이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장안사 대웅전 불상조성에 참여한 화승과 녹원은 서로 어떠한 관계인지가 궁금해 진다. 장안사 대웅전 불상제작의 차화승으로 등장하는 明峻은 1666년으로부터 1676년까지 10여년의 활동이 확인되었는데 1666년 전남 장흥 보림사 천왕문과 천왕을 중수¹⁹⁾와 1674년에 장흥 보림사 시왕상을 제작²⁰⁾, 1676년에 전북 고창 선운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제작했다.²¹⁾



<그림 18> 고창 선운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1676), 明峻作



<그림 19> 고창 선운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손세부

19) 주7)과 동일
20) 주8)과 동일
21) 주9)과 동일

명준이 제작한 불상은 고창 선운사 목조지장시왕상만 남아 있는데 그 보다 앞서 제작된 장흥 보림사 목조지장시왕상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고창 선운사 명부전의 지장시왕상은(그림18), 높이 137cm의 목조불상으로 상반신이 길고, 하반신이 상반신에 비해 빈약하며, 신체에 비해 머리도 작은 편이다. 가운데로 모인 듯한 이목구비와 좁고, 선명한 인중선 등 신체의 비례나 전체적인 인상 등에서 자수나 녹원의 불상과는 차이를 보이며, 다리 사이에 대담하게 접어 무릎에서 발목으로 내려오는 옷주름과 옷자락의 끝단이 S자형을 이루고 있는 표현은 특징적이며²²⁾, 또한 매우 가늘고 길면서 곡선적으로 표현된 손가락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그림19).



<그림 20> 예천 용문사 대장전 후불목각탱 ·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瑞應作, 1684년

<그림 21> 영월 보덕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본존), 1687년, 卓密作

학륜은 1684년 경북 예천 용문사 목각탱과 1687년 강원도 영월 보덕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상 제작에 참여한 인물이다. 예천 용문사대장전 목각탱과 목조아미타불좌상(그림20)을 조성할 때에는 瑞應을 비롯하여 卓密, 學倫, 法淸,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이 참여하였으며²³⁾, 영월 보덕사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그림21)을 제작할 때에는 卓密을 수화승으로 學崙, 坦性, 楚崙, 世雄, 處應, 裕特이 활약하였다.²⁴⁾ 탁밀과 단응은 각각의 작품에서 수화승으로 활약하였지만 가슴에서 배까지 늘어져 있는 U자형 옷자락이 배 아래에 까지 내려와 W형과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²⁵⁾, 얼굴의 인상, 양다리

22) 선운사 목조지장시왕상의 특징을 통해 명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영암 도갑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다. 하체가 좁고 긴 상반신, 좁고 선명한 인중선, 그리고 대담하면서 자연스러운 옷주름의 표현, 그리고 길고 가늘면서 부드러운 손가락의 표현은 고창 선운사 불상과 매우 유사하다.

23) 심주완, 『龍門寺 목불상의 작품과 그 영향』, 『강좌 미술사』제26호, 139~161쪽.

24) 심주완, 같은 글, 141쪽 참조.

사이의 균의 주름처리 등은 매우 유사하여 같은 초를 가지고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위 龍門寺派로 명명되는 이 화파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강원도와 경상남도도 그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학륜은 이 계보에서 활동한 조각승으로 이해된다.

현재의 기록과 조사된 내용을 통해 녹원과 조성 활동한 관련 조각승들의 양식적인 특징을 파악해 보았으나 서로 양식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상에서 보면 발원문에 적인 조선후기의 조각승들은 화맥이 같은 조각승으로 회원질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양식적 연관성을 찾아 보기 어려운 장안사 대웅전 불상의 조성한 회원들을 보면 사찰측의 요구에 의해 이들 집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IV. 조선후기 석조불상의 분포와 諸樣相

장안사 삼세불상을 비롯한 명부전 응진전 불상의 재료인 불석은 조선후기의 석조불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적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석조불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일대에 특히 집중적으로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사업단에서는 몇 년간에 걸쳐 한국의 사찰문화재를 지역별로 조사가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보고 작업이 출판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시도별 석조불상의 위치와 그 내용을 파악하여 <표 2>로 정리하였다. 참고로 석조불상의 조성시기는 기록에 조성연대가 남아 있는 것은 연대를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未調査 석조불상은 조선후기로 표기하였다.

<표 2> 조선후기 석조불상

地域	奉安處	作品名	規格(cm)-像高	時期	
전북	부안	성황사 산신각	석조아미타삼존불상	본존47.0/우37.0/좌36.8	조선후기
강원도	삼척	영은사 대웅보전	석조비로자나불좌상·약사불·아미타불좌상	본존98.0/우98.0/좌98.0	조선후기
전남	순천	동화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좌상·나한상	본존76.0/우66.0/좌65.0	조선후기
		송광사 화엄전	석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본존54.0/우45.8/좌46.1	조선후기
		불조전	석조삼신불좌상·나한상53구	본존56.0/우54.6/좌53.0	1684년

25) 심주완, 같은 글, 153쪽 참조

地域	奉安處	作品名	規格(cm)-像高	時期		
충북	여수	홍국사 불조전	석조오십삼불좌상	47.0~36.5	조선후기	
	구례	사성암 약사전	석조불좌상 32구	42.0~59.5	조선후기	
		화엄사 나한전	석가여래좌상·나한상 등	석가상 51.4 나한상 35.5~39.3	조선후기	
	보성	관음정사 인법당	석가여래좌상 등 7구	27.0~48.5	조선후기	
		대원사 극락전	석조여래좌상 등 7구	22.5~24.5	조선후기	
	해남	대흥사 천불전	석조여래삼존불좌상	본존52.5/우53.0/좌53.0	1821년	
충북	영동	반야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본존100/우78.6/좌73.6	조선후기	
	보은	법주사 팔상전	나한상 등	26.7~33.6	조선후기	
		법주사 능인전	석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나한상16구	본존73.7/우59.2/좌57.5 나한상 57.5~49.5	조선후기	
대구·경북	영주	부석사 응진전	석조나한상	본존54.0/우43.5/좌45.0	조선후기	
	성현사 나한전	석조나한상	31.5~46.5	조선후기		
	예천	보문사 극락보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본존79.5/우60.5/좌61.2	18세기	
	안동	봉황사	석조여래삼존불좌상	본존163/우149*/좌147*	1692년	
			황화실	석조관음보살좌상	59.0	조선후기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범천제석천·나한상	본존95.0/우78.3/좌78.5 범천88.3/계석천87.3 나한상64.0~72.3	조선후기
	울진	불영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등	본존139/무독127/도명125 시왕상148.0~163.0	조선후기
			대적광전	석조석가삼존불좌상	본존90.3/우65.5/좌66.0	조선후기
	의성	수정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본존76.0/무독70.0/도명76.0	조선후기
			대웅전	석조나한상 13구	56.5~45.2	조선후기
	의성	대곡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등	본존83.5/무독110/도명103 시왕상 105.5~115	조선후기
			주월사 대웅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본존67.0/우58.0/좌54.7	조선후기
	청송	대전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본존104/우78.5/좌76.0	조선후기
			보광사 극락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본존96.2/우90.2/좌89.4	조선후기
			수정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본존52.5/우40.0/좌45.5	조선후기
	구미	금강사	석조석가여래좌상	56.0	1701년	
			약사암 대웅전	석조대세지·석조관음보살좌상	세지75.0/관음74.0	조선후기
	김천	계림사 대웅전	석조아미타상·관음보살상· 약사상	본존67.0/약사64.0/관음59.3	조선후기	
			봉곡사 대웅전	석조석가삼존불좌상	본존103/우87.0/좌88.0	조선후기
	문경	김룡사 응진전	석조삼존불좌상·나한상	본존62.5/우63.5/좌62.5 나한상 48.5~58.5	조선후기	
	상주	남장사 영산전	석조삼존불좌상·범천·제석천· 나한상	본존69.5/우59.3/좌58.4	조선후기	
			용흥사 나한전	범천·제석천·나한상	제석천110.2/범천109.5/ 나한상 68.5~78.3	조선후기
	대구	동화사 영산전	석조삼존불좌상·나한상	본존80.5/우64.0/좌65.4 나한상 50.0~54.4	1800년	
			북지장사 대웅전	목조본존상, 좌우협시 석조상	우109.0/좌106.0	조선후기
달성	남지장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본존101.0/우71.0/좌73.0	조선후기		

地域	奉安處	作品名	規格(cm)-像高	時期		
경산	소제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	본존112.0/우96.3/좌94.0	1673년		
		용연사 영산전	석조석가여래좌상·나한상 나한상55.5~66.0	조선후기		
		유가사 대웅전	석가삼존불좌상	본존108/우77.5/좌74.5	조선후기	
	경주	기림사	응진전	석가삼존상·나한상	본존76.5/우71.5/좌70.0	조선후기
			명부전	석조도명·석조무독·석조시왕상	도명126/도명110 시왕상 126.0~140.0	조선후기
	백률사	대웅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범천· 제석천·나한상	본존121.0/우112.0/좌133.0 범천62.0/제석천74.0 등	조선후기	
		나한전	석가삼존불좌상·나한상	본존77.5/우60.0/좌67.5 나한상 45.9~56.8	조선후기	
	영천	巨洞寺 대웅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석조무독 귀왕·석조도명존자	본존91.0/우90.0/좌84.0 무독88.0/도명85.0	조선후기	
		妙覺寺 極樂殿	석조아미타불좌상	47.0	1775년 중수	
法蓮寺 極樂殿		석조여래좌상	46.5	조선후기		
富貴寺 極樂殿		석조삼존불좌상	본존93.5/우77.0/좌74.0	조선후기		
靈芝寺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등	지장116/무독134/120.5 시왕상104~118	조선후기		
銀海寺 居祖庵 영산전		석조삼존불상·나한상	본존84.0/우109.6/좌110.0 사자상 180.8/182.0	고려후기		
銀海寺 奇奇庵 인법당		석조보살좌상	86.2	조선후기		
銀海寺 百興庵 영산전		석조나한상 16구	33.6~41.4	조선후기		
竹林寺 응진전		석조석가삼존불좌상·나한상	본존69.0/우60.0/좌62.0 범천57.0/나한상32.5~52.0	조선후기		
포항		대성사 흥인당	석조관음보살좌상	34.0	1736년 중수	
	보경사	대웅전	석조석가삼존불좌상	본존106.0/우84.7/좌84.0	조선후기	
		팔상전	석조석가삼존불좌상	본존120.3/우94.0/좌95.5	조선후기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등	지장104.5/우103.0/좌105.0 시왕상134.0~152.0	조선후기	
	서운암 극락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본존50.5/우40.0/좌39.5	조선후기		
	옥천사 대웅보전	석조여래좌상	53.0	조선후기		
군위	신흥사 대웅전	석조여래좌상	56.0	조선후기		
	수태사 원통전	석조관음보살좌상	55.0	조선후기		
	압곡사압곡보궁	석조여래좌상	53.0	조선후기		
	인각사	극락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본존133.0/우123.0/좌125.0	1688년	
		명부전	석조도명·석조무독· 석조시왕상 등	도명93.6/시왕상120~122.5	조선후기	
지보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본존83.0/우69.0/좌66.5	조선후기			
청도	대비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좌상	116.0	조선후기		
	대산사 원통전	석조관음보살좌상	94.0	조선후기		
	대적사 극락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본존72.3/우63.5/좌61.5	조선후기		

地域	奉安處	作品名	規格(cm)-像高	時期		
충청	덕사	영산보전	석가삼존불좌상·법천·제석천·나한상 등	본존92.7/우76.5/좌82.5 아년84.5/가섭84.5등	1678년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지장118/무독129.5/도명111.5 시왕상117.0~135.0	1678년	
	용천사	나한전	석조석가삼존불좌상·나한상(16구) 등	본존83.0/우70.0/좌67.5/제석70.0/법천74.0/나한53.0~63.5	조선후기	
	운문사	응진전	석가삼존불좌상·법천·제석천·나한상(16구) 등	본존83.0/우67.6/좌69.0/제석63.5/법천63.6/나한50.0~60.6	조선후기	
		관음전	석조관음보살좌상	65.0	조선후기	
	적천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등 일괄	지장125/무독140/도명119.5/ 시왕상154.0~167.0	조선후기	
	철곡	금곡사	극락전	석조아미타불좌상	98.2	조선후기
		대둔사	극락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본존85.0/우69.0/좌69.5	조선후기
		도덕암	나한전	석조석가여래 및 나한상(16구)	본존50.5/우48.0/좌61.5 나한상39.5~47.0	조선후기
		송림사	배전 극락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본존125.0/우103.5/좌101.5	1655년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천장보살(그외 목조)	지장123.0/천장138.0	1665년
	부산·경남	부산	운수사	석조삼세불좌상	본존86.0/우83.8/좌81.0	17세기 후반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	본존139.3/우103.5/좌109.5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지장108.3/무독110.7/도명99.3	1684년
나한전				석조석가여래상·나한상	본존72.0/우61.0/좌63.0	1684년
양산		원효암	석조약사불좌상	77.0	1648년	
		용화사	석조아미타불좌상	*	조선후기	
남해		남해 관음암	용화사	석조관음보살좌상	*	조선후기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	조선후기
고성		옥천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	조선후기
			표충사	명부전	석조시왕상 등 일괄	지장133.0/우81.0/좌74.0 시왕상 107.0~121.0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I,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남도, 『한국의 사찰 문화재』-강원도, 『한국의 사찰문화재』-충청남도·대전광역시,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의 보고집에 의해 작성된 것임. (*未調査)

현재 <표 2>에서 보면 석조 불상은 17세기 중반을 전후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의 규모면에서 경상도 지역에 분포하는 석조불상들은 30cm~40cm의 소형불상들도 있지만 100cm에서 140cm 높이의 불상들이 전각에 삼존불의 형태로 봉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여수, 순천 등 전라도와 충청도에 분포하는 불상은 규모가 작고, 순천 송광사를 제외하면 단독상으로 봉안된 경우가 많아 경상도 지역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경상도 지역은 울진의 불영

해지면서 한국의 불석이 분포지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구룡포, 동해, 장기, 감포, 양남 등지에서 불석이 산출되며,²⁶⁾ 화학 조성상의 특징에 따라 Clinoptilolite, Mordenite, Cristobalite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Clinoptilolite, Mordenite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²⁷⁾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불리우는 경주불석이라는 명칭은 감포지역의 불석을 채취한다는 의미일 뿐 불석의 생산지 의미하는 통칭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석의 분포도와 (그림23)을 비교하면,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조선 후기 석조불상이 불석의 분포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즉, 충청도나 전라도와는 달리 불석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던 경상도 지역에 불석 불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불석의 수급이 용이한 경상도의 입지적 조건은 여러 전각에 불석 불상을 봉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경상도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석조불상을 조성된 사례를 볼 때 임진란 이전까지는 불석이 불상의 재료로 활용된 예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불석을 재료로 한 불상이 나타나는 점은 시대적인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 후기 불교계는 양란에 승병이 봉기하여 많은 공을 세우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분위기는 많아 달라졌다. 전에 없던 승려에게 승직을 주고, 남한·북한산성의 축조와 수비 등과 같은 임무들이 승려들에게 주워졌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의 사역집단으로 변질되었고 국가에서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했다.²⁸⁾ 예를 들어 2개월에 한번씩 전국 사원에서 승려를 차출하였는데 사원의 규모에 따라 대찰은 4~5명 소찰은 1~2명 차출 인원이 달라졌고, 인원이 적은 절에는 절을 비워두고 가야하는 경우도 생겼다.²⁹⁾ 승려수가 많더라도 차출되는 승려는 청년층이어야 하는데 할당된 수만큼 젊은 승려가 없는 경우에는 고령의 승려를 보내야 했고, 다녀와야하는 여비라든지 식량, 의류

26) 황진연, 『Occurrence and Utilization of Natural Zeolite in Korea』, 135쪽 참조.

27) 황진연, 1988, 『경북 감포지역 제3기층에 산출되는 불석광물 및 점토광물의 산상 및 분포』, 『지질학회지』 제24호-2호, 6월, 105-112쪽.

28) “의병들에게 빈관직을 줌으로써 나라의 법을 문란하게 하는 폐단로 없어질 것이고, 또 재물을 소비하여 재물을 소비하는 군사를 먹여야 하는 걱정도 없어질 것이다.” 『宣祖實錄』卷38 宣祖26年 6月の 내용은 당시 국가가 승려들을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9) 『英祖實錄』卷81 英祖130年 甲戌條, 『正祖實錄』卷12 正祖15年 丙申條, 『正祖實錄』卷19 正祖9年 二月 辛巳朔條의 내용에서 보듯이, 사원의 경제적인 착취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李載昌, 『韓國佛敎寺院經濟研究』, 불교시대사, 181~184쪽./ 韓相吉, 『朝鮮後期佛敎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39~51쪽.

등 일체의 부담을 모두 승려 스스로가 해결해야 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승려가 없게 되어 폐사되는 경우도 생기고, 승려의 여비와 경비를 출신 속가의 재산까지 팔아야 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려들은 제반 잡역에 동원되어 온갖 수탈을 감당해야 했는데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종이를 공급하는 일로 사찰은 紙物生産所로, 각종 供物의 공급처로 전락하게 하였다. 이러한 승려들 참상은 지방관허들의 주청에 의해 제도의 일부가 수정되기도 하였으나³⁰⁾ 별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당시 사찰내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불상의 재료에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어렵게 조성한 불상이 화재나 수해 등의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비워져 있는 사찰에 도적과 같은 외부의 침입의 빈번함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은 물과 불에 강하고 돌의 무게 때문에 도난으로 생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인 석재를 선택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강도가 약해 조각이 용이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불석은 가장 적합한 재료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실제 17세기 중반이후 경상도 일대에 석조의 불상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데서도 알 수 있다.³¹⁾

불석은 화강암과는 달리 입자가 매우 작아 표면이 매끄럽고 흡습이나 흡착력이 좋으며, 돌의 구조가 매우 단단하지만 가볍고 조각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표면에 도금을 올리려고 할 때, 배접이나 호분처리를 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옷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옷칠 없이 도금한 사례들이 많아 여러 과정을 거치는 다른 재료에 비해 경비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³²⁾ 또 석질의 부드러움은 외관상 목질 같은 느낌을 주어 목조의 효과와 불에 강한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석질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불석으로 불상을 조성한 조선 후기의 조각승들의 지혜와 한정된 석재로 만들어진 장안사 대웅전 불상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30) 『英祖實錄』卷85 英祖31年 8월 乙卯條

31) 경상북도와 남도의 조선후기 석조불상의 조사가 이루어지 있지 않고 있으나 불상의 양식상 17세기 중·후반 이후에 제작된 것이 많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더 명백해지리라 기대한다.

32) 우리나라에 흔한 화강암과 비교하면 화강암은 석영의 입자가 크고, 무거우며, 돌을 다듬기가 어렵고, 도금시에 석영의 입자가 커 시각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함을 줄 수 있다는 조건도 있었다. 불석에 대한 특성은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황진연 교수님의 조언이 있었으며, 지면을 통해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V. 결론

지금까지 기장 장안사 대웅전의 불상의 특징과 조각승 녹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웅전 불상을 조성한 녹원은 기장 장안사를 비롯하여 해인사 명부전(웅천성홍사) 목조지장시왕상의 조성을 통해 그의 활동 영역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나 그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함께 작업한 지수와 녹원은 양식적인 유사성을 가지면서 이미 수화승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원을 통해 선후배의 관계로 같은 유파 속에 있는 화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기장 장안사 대웅전불상을 조성한 녹원 명준, 학륜은 양식적인 유사성을 찾기 어려워 사찰측의 요구에 의해 필요시 도와주는 형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화원집단이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후기 석조불상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일대에 집중분포하며, 다른 지역과 달리 전각을 모두 석조불상으로 봉안하는 것은 불석의 분포지가 경상북도 구룡포를 포함한 감포나 동해 등 산지와 가까워 불석의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불석의 석조불상 출현은 피폐한 당시 경제적인 상황에 맞는 내구성이 강하고 조각성이 뛰어난 석재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본인은 기장 장안사 대웅전 불상을 통해 조선후기 석조불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았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 불교 조각의 독자성을 밝히는 시론으로 삼고자 한다.

※ 경상도지역 불상과 발원문조사에 있어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신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 이용현 선생님, 해인사 명부전 조사에 협조해 주신 해인사 성보박물관 정미경 선생님, 불석에 대해 조언해 주신 우리실 문연순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논문을 주도해 주신 정은우 교수님, 불석에 대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황진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투고일 2008년 7월 18일 |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9일 | 게재확정일 2008년 8월 22일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3, 『朝鮮王朝實錄 佛敎史料集』19~23.
부산시·부산대학교, 『釜山의 古地圖』, 63쪽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규장각)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II,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남도,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강원도,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충청남도·대전광역시,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東國大學校刊.
機張郡誌編纂委員會, 『機張郡誌』上, 下
金智冠編著, 『伽倻山 海印寺誌』
『譯註 寶林寺重創記』, 2001, 장흥문화원.
『兜率山 禪雲寺誌』, 2003, 禪雲寺.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8, 『佛敎美術』3.
沈柱完, 2007, 『龍門寺 木佛像의 작풍과 그 영향』, 『강좌 미술사』26호.
정은우, 2006, 『17세기 조각가 혜희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2권.
정은우, 2007, 『조선 후반기 彫刻의 對外交渉』,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황진연, 1988, 『Occurrence and Utilization of Natural Zeolite in Korea』.
황진연, 1988, 『경북 감포지역 제3기층에 산출되는 불석광물 및 점토광문의 산상 및 분포』, 『지질학회지』제24호-2호.
李載昌, 1993, 『韓國佛敎寺院經濟研究』, 불교시대사.
韓相吉, 2006, 『朝鮮後期 佛敎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Abstract

The stoned Buddhist Triad of Gijang Jangansa's main temple and late Joseon Dynasty's Buddhist statue

Lee hee-jung

Only few major temples located in Busan have Buddhist sculptures of late Joseon Dynasty and those are at Beomeosa(Dongrae), Jangansa (Gijang). Within those areas, Haedong-Jido indicates that many big and small Buddhist temples were existed near Gijang area. It not only has the record of Seonyuhsa and Chijeongsa but also has the record of current existing temples such as Anjeoksa and Jangansa.

Unlike many other temples, Jangansa (located in Busan Gijang-gun Jangan-eup Jangan-ri) stands on the same location as it was first constructed. Therefore, it still has many Buddhist artifacts which are the relic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se are the main temple, stoned buddhist triad (Seokjosamsebulsang) (1657), Eungjinjeon and Nahanjeon Buddhist statue (1684), and Myeongbujeon Buddhist painting (1856).

One of the most recognized artifacts is Nokwon's stoned buddhist triad (Seokjosamsebulsang). Strong facial impression and its dress not only well represents sculptor's characteristics but also well sculpted Buddha's iconology in order to the temple's demand with difficult stone.

Although Nokwon was Suhwaseung (Head of the Buddha Sculptor) of Gijang Jangansa's stoned buddhist triad (Seokjosamsebulsang), he also worked together with Jasu as his Chahwaseung (Deputy Head of Buddha Sculptor) of Ungcheon Sungheungsa Judgement Hall's Mokjojijangsiwangsang (it is now removed to Haeinsa Judgement Hall). Even though, the sculpted time are varies, their similarity leads future generation to assume either they are friends or classmates of same type of school. Since Myeongjun, Hakryun, and other sculptors who were involved in stoned Buddhist statue (Seokjosamsebulsang) do not have similar pattern, they

might be a group of sculptor that the temple randomly employed for supporting purpose.

In addition to this, all of main temple, Judgment Hall, and Eungjinjeon of Jangansa's Buddhist statues are made of stone. It is because of geographical strength that the supply of stone was easy in Guryongpo, Gampo, and East Sea area.

I have been researched stoned Buddhist statue of Gijang Jangansa's Main temple to study late Joseon Dynasty's Buddhist statue,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remaining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of Buddhist statue of late Joseon Dynasty. Therefore, I would like to continue the study of Buddhist statue of late Joseon Dynasty with analyzing with more data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statue of Busan and Gyeongsang Province area.

Key words : Jangansa, Monk-sculptor, Zeolite, Nokwon, Gyeongsang province